세계유산 '산사' 가치 · 위상 조명하다

안동 봉정사 · 공주 마곡사 등재 기념 학술대회 잇달아

봉정사 · 유림 교류 양상 분석
조선 儒者들 독서공간 각광
'천등' 중심 스토리텔링 필요
능인대사 천등굴 보존 시급해

조선 궁궐서 사용한 '청기와'
마곡사도 확인돼 관계 주목
후사 기원 정조와 인연 추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기념하며 각각 산사들의 위상과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한 산사인 안동 천등산 봉정사와 공주 태화산 마곡사의 전경.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 1주년을 기념해 각각 산사들의 위상과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조계종 천등산 봉정사(주지 도륜)는 7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봉정사의 가치와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교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안동과 봉정사의 관계를 살피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황만기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봉정사 관련 시문에 나타난 선비들의 교류 양상'을 통해 조선시대 유림(儒林)이 봉정사를 통해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를 살폈다.

황만기 교수에 따르면 봉정사와 관련 깊은 조선 유학자는 단연 퇴계 이황(1501~1570)이다. 퇴계는 16세(1516)에 숙부 송재 이우의 권유로 봉정사에서 독서를 한다. 1515년 송재는 안동부사로 부임했고 자신의 아들 이수령과 조카 퇴계를 위해 1516년 가을 독서 공간인 애련정(愛蓮亭)을 건립했다. 퇴계는 1516년 봄부터 가을까지 봉정사에서 독서를 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이후 퇴계는 50년 뒤인 1566년에 다시 봉정사를 찾게 된다. 그는 그해 1월 조정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가던 중 병환으로 사직소를 올린다. 하지만 윤허되지 않자 광흥사, 봉정사 등으로 처소를 옮기며 소를 계속 올리게 된다. 퇴계는 봉정사에 머물며 제자 금계 황준량의 문집 〈금계집〉을 교정했고, 남쪽 골짜기의 낙수대를 명옥대로 개칭했다.

퇴계는 봉정사를 독서의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그의 사후에는 퇴계를 기르는 기념공간이 된다. 실제, 약포 정탁 · 송암 권호문 등 많은 유학자들이 봉정사에 들러 퇴계가 읊은 봉정사 서루 시에 차운하거나 명옥대 시에 차운하면서 퇴계를 추념했다.

황만기 교수는 "이때부터 봉정사는 불교 문화가 유교 문화로 변질되는 양상을 띠었다"면서 "이동표와 정필달은 퇴계를 봉황으로 비유해 퇴계가 이곳에 머물러 봉정사가 됐다고 하며 봉정사를 불교 공간이 아닌 유교의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 인근에는 맹사성이 공부하던 개목사, 퇴계 부친과 숙부가 독서하던 용수사 등 사찰 외에 유교 공간으로서 함축성이 강한 사찰이 여럿"이라며 "이들 사찰에 대한 연구를 확대한다면 불교 공간 속에 내재된 유교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호림 안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봉정사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봉정사 창건 설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그는 봉정사의 창건설화가 '천등'과 '봉황'의 두 층위로 나뉘며, 새로운 담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천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을 제언했다.

신호림 교수는 "'천등'은 봉정사를 창건한 능인대사의 깨달음을 의미하며 그 깨달음을 얻은 공간인 천등굴은 봉정사의 기원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며 "기원에 대한 기억은 봉정사의 신성성을 담보하며 그곳에서 내려온 천등에 주목했을 때 그 빛을 품어주는 봉황의 이미지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주 태화산 마곡사(주지 원경)는 7월 10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선왕실과 마곡사의 관계를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은 '마곡사의 가람배치와 조선 국왕과의 관련성 검토'를 통해 마곡사 대광보전 청기와와 조선 궁궐의 관계를 조명했다.

조원창 원장은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경복궁, 창덕궁, 원각사 법당 등 소수의 유적지에서만 청기와가 검출됐다"면서 "궁궐의 경우도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전과 편전에서만 청기와가 확인됐다. 청기와의 장식 · 장엄성 이외에도 권위의 상징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와에 사용된 청색안료는 중국에서 수입했을 정도로 귀했고, 이런 이유로 청기와를 사용한 사찰은 충남에서 마곡사, 갑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럼에도 마곡사 대광보전 용마루에 청기와가 사용됐다는 것은 마곡사와 조선왕실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단초라는 게 조원창 원장의 주장이다. 또한 마곡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일월오악도'의 존재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조원창 원장은 "조선시대 궁궐이나 왕의 야외행차 때 설치하는 상징물인 일월오악도는 청기와와 더불어 마곡사와 국왕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원창 원장은 마곡사와 관계된 국왕은 정조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그는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농산 · 체규 · 계일 등이 천일기도를 통해 순조 탄생을 기원한 것과 연관된다"면서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에도 '국가를 위해 바친 정성이 극진해 국가에서 보답이 내려졌다'는 구절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원효 '화쟁사상' 종합적 고찰 담다

주목! 학술서 – 김영일의 〈화쟁사상〉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사상(和諍思想)'은 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정작 '화쟁'이 어떤 구조로 이뤄졌으며,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일 동국대 연구교수가 발간한 〈화쟁사상〉은 원효 스님의 화쟁에 대한 종합설명서에 가깝다.

저자인 김영일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도 '원효와 지눌의 돈점관', '도신과 원효의 수행관' 등 꾸준히 원효를 탐구해온 논문들을 발표해 오고 있다.

원효는 화쟁사상에 대한 종합적 저술인 〈십문화쟁론〉을 총10장으로 구성했는데, 이를 오마주하듯 저자 역시 이 책을 총10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1장은 이 책을 소개하는 '서론'에 해당하고, 제2장부터는 화쟁사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화쟁총론'에 해당하며, 제6장부터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화쟁하는 '화쟁각론'으로 볼 수 있다.

'제1장 화쟁론 서설'에서는, 선행연구부터 책에 대한 내용을 친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본문이 어려운 독자들은 서설을 먼저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2장 화쟁의 모습'에서는, 원효가 화쟁한 모습을 화쟁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3장 화쟁의 방법'에서는, 화쟁사례의 내용을 분석해서, 원효가 화쟁한 방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제4장 화쟁의 논거'에서는 화쟁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원효가 화쟁에 사용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제5장 화쟁의 연원'에서는 원효가 제설을 화쟁하는데 바탕이 되었던 사상적인 근거를 탐구하고 있다.



각론에 해당하는 '제6장 공유화쟁론'에서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 '이 세상의 참모습은 공(空)인가, 유(有)인가'라는 주제로 논쟁한 것을 다루며, '제7장 불성화쟁론'에서는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의 중생인가, 모든 중생인가?'에 대해서 논쟁한 것을 분석한다.

'제8장 불신화쟁론'은 불신(佛身)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논쟁을 분석하며 '제9장 정토화쟁론'에서는 미타정토경전이나 미륵정토경전에 담긴 논쟁을 다루고 있다.

'제10장 종교화쟁론'에서는 종교간 논쟁에 대해 분석한다. 원효의 종교화쟁론에 대해 저자는 "종교포괄주의적 아이디어와 종교다원주의적 아이디어가 '동시에' 성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쟁을 총론 · 각론적으로 분석한 저자는 화쟁사상이 현대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김영일 교수는 "130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설한 원효 성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면서 "원효 성사의 화쟁사상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전체와 부분이 진정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通通' 튀는 문화유산 영상 만들어 보세요

중고생 · 대학생 대상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

다양한 문화유산 가치를 담아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에서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월 16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우리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자유형식의 영상으로 담은 참신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중고등학생과 만 13세~19세의 청소년(개인, 단체 또는 지도교사를 포함한 동아리), 대학생(개인, 단체 또는 동아리)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상은 캠코더,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영상매체로 창작한 다큐멘터리 · 만화 · 드라마 · 광고 · 영화 등을 자유 형식으로 제작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EBS) · CJ ENM · 아리랑TV · 국악방송, 방송대학TV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시상을 비롯한 온라인 홍보 등을 후원한다. 특히 국악방송은 한국전통음악 음원을 무료로 제공해 참가자들이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원은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서 무료로 제공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중 · 고등부와 대학생부로 나누어 문화재청장상, 재단이사장상, 후원사 사장상, 우수지도자상 등 총 39편(총 상금 880만원)을 선정하여 오는 10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영상공모전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